

장성,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상무대 장병에 특식 제공



장성군이 지난 11일 지역 외식업체와 함께 상무대 장병에게 특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상무대 장병 1400여 명에게 장성 떡갈비 버거, 토마토 파스타, 닭스타 구이, 장성사과즙, 샐러드, 태극기 문양 쿠키 등 장성산 먹거리를 활용한 음식을 선보였다.

이번 장병특식은 ㈜더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단체급식 준비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경영주는 물론 창업 준비 청년, 장성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다.

장성군은 앞선 9월,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특화음식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상생급식' 품평회도 가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병특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식업 경영자와 청년들이 소중한 현장 경험을 쌓았을 것"이라며 "장성 먹거리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 “봄이나, 함평가자” 나비대축제, 오는 26일 화려한 개막

매년 인기 폭발 ‘나비날리기’ 등 다채로운 공연 잇달아  
함평 추억공작소 ‘황금박쥐’ 등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살아 있는 나비와 황금박쥐 조형물이 유명한 전남 함평의 친환경 나비대축제가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다.

함평군은 제26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생태습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축제로 지정된 함평 나비대축제는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축제의 대표 나비는 알록달록한 줄무늬가 특징인 ‘산호랑나비’다. 함평군의 상징인 호랑나비는 강한 번식력과 활동력으로 군민의 무궁한 발전과 만대번영을 의미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메리골드 등 30종의 다채로운 꽃 80만 본과 산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23종 25만 마리의 나비·곤충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첫날인 26일 오전 9시 열리는 ‘나

비날리기’ 행사가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 주무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일원에는 야외 나비날리기 체험, 전통민속놀이, 슬라임 체험, 나비가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나비날리기는 유아·어린이 동반 가족(회당 50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매일 5회(오전 10시·11시, 오후 1시30분·2시30분·3시30분)에 걸쳐 실시한다.

잔디광장 주무대에서는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나비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생태습지에서는 야기 동물과 친구되기, 쫓소복장 놀이 체험, 나비순수건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

특히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명 때리기 좋은 곳’도 마련했다.

생태습지 일원에 10여 동의 텐트를 설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육식물관에서는 다육선인장, 용설란 등 650종 3000 본을 전시하며 수생식물관에서는 열대야자, 수련 등 72종 546본과 비단잉어 등 4종 300마리를 볼 수 있다.

나비·곤충생태관에서는 살아있는 나비 곤충 일대기와 실제 나비날리기 체험을 진행하며 나비곤충표본 전시관에서는 세계 희귀 나비·곤충 표본과 곤충 VR(가상현실)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함평추억공작소’ 있다. 엑스포공원 내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2223㎡ 규모로 신축한 함평추억공작소는 1970~1980년대 함평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특히 이곳 전시장 1층 입구 공간에는 최근 급값 상승으로 화제를 모은



황금박쥐상을 상설 전시한다.

축제의 백미인 공연 또한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준비했다. 27일에는 Mna ‘스트릿 무먼 파이터’의 우승 밴드 ‘홀리밴드’가, 28일에는 감성 발라드 ‘케이시’가 무대에 오른다. 5월 1일은 국민 밴드 불리는 ‘YB(윤도현밴드)’가, 5월 4일은 인기 록밴드 ‘육중완밴드’가 무대를 장식한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엄마까투리 공연과 그룹 코요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5월 6일에는 어버이날을 이룰 앞두고 트로트 가수 박서진, 김정우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축제장은 밤이 되면 야간경관 조명이 손님맞이에 나선다. ‘대한민국 밤밤곡 100선’에 선정된 엑스포공원 일원에는 꽃과 함께 장식된 야간경관 조명이 더해져, 형형색색의 빛으로 수놓인 색다른 모습의 엑스포공원을 만나볼 수 있다.

저녁시간 이후에는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함평 자동차극장’도 있다. 함평자동차극장은 축제장과 인접해 있으며, 매주 신작 영화가 개봉하고 배달 음식도 현장에서 수령이 가능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함평=김홍희 기자

## “유기견에게 입양의 축복을”... 담양, 유기동물 사진전

오는 20일까지 개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진행

담양군은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6일간 가톨릭 갤러리 현(광주 서구)에서 담양군 유기동물입양센터 유기견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유기견의 아픔을 벗고 입양이라는 축복을 전하기 위해 담

양군과 ‘사진7번지’ 인준교 사진작가가 함께했으며,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의 후원과 담빛청소년문화의집 봉사동아리 ‘또바기’ 아이들과 입양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이뤄졌다.

사진전에는 담양군 ‘유기동물입양센터’를 통해 따뜻한 가족을 만난 반

려견들의 행복한 모습, 평생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모습,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아이들의 따뜻한 모습까지 20여 점의 사진들이 전시된다.

또한, 사진전 이외에도 유기동물 입양 상담과 더불어 반려동물 예절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이병노 군수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이들을 실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입양이다”라며 “많은 사람의 관심과 성원 속에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유기동물 입양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통해 입양견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보험 가입비 등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강성국 기자



화순군 문화관광  
http://www.hwasun.go.kr/culture  
문의전화 061) 379-3575-7

#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 선사시대로 떠나는 봄소풍

2024. 4. 19.(금) - 4. 28.(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

## 나주시 명품 한우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키운다

3년간 21억 투입... 경종·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대

나주시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명품 한우 육성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섰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3년간 자체 예산 21억원을 투입해 조사료 생산비 보증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계속되는 곡물·사료 가격 상승과 기후변화로 인한 조사료 수확량 감소, 수입 조사료의 단계적 관세 철폐 영향에 따른 국내 공급 불안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조사료 생산 경영체의 생산비 절감과 한우 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나주시역 한·육우, 젖소 사육 규모는 1615농가, 6만 5000여마리로 연간 조사료 필요량은 16만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 필요량의 약 41%만 라이그라스, 수단 등 동·하계 사료 작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나주시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지급률을 60%까지 크게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사료 생산비 지원은 경쟁 유도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사료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조사료 생산비 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경종(耕種)·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전문단지 추가 확보와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허필수 기자

## 화순 ‘재혼’ 부부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 해당

화순군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생애 1회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포함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경력이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신청자)은 화순군에 주소와 실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결혼 장려 관련 정책은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화순군 결혼장려금 1,000만 원에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두 지원금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화순=주용현 기자

## ‘통일 기원’ 정남진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 성료

장흥군육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민 2000여 명이 참가했다.

탐진강과 장흥댐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모으고, 장흥이 ‘통일 시대의 땅’임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하프코스, 10km 단축코스, 5km 건강코스까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경기 시작 전에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특별 공연도 준비됐다.

탈북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아리랑 예술단이 출발 전 무대에 올라 노

래와 춤을 선보이며 ‘통일 기원’ 마라톤 대회를 응원했다.

통일 기원 자전거 라이딩, 한반도기 행진, 통일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이어졌다.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선수와 장흥군 홍보자문인 김성현(전 기아타이어즈 감독)도 행사 당일 참석해 팬 사인회를 열었다.

대회결과 하프코스 남자 1위는 박홍석(경남거제/1시간14분24초), 여자 1위는 유미정(광주광산/1시간30분17초) 선수가 차지했다.

10km 남자 1위는 이준혁(전남

119/35분26초), 여자 1위는 박은정(전남여수/43분16초), 5km 남자 1위는 정승철(광주서구/19분 02초), 여자 1위는 김애정(전남화순/24분08초)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장흥군은 대회 당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마라톤코스 구간에 모든 차량을 통제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참가자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통일 시대의 땅’ 정남진 장흥이 전국에 알려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